

쌀 공급과잉 우려에 쌀 가격 하락폭 확대

초과공급·재고 부분 출하 등 하락폭 커져...내달 19만원 이하 전망 수급안정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농가들의 적극 참여 필요

4월부터 쌀 가격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쌀도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쌀 관측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80kg당 19만3000원을 기록했던 산지 쌀 가격은 4월부터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5월에 이르면 19만원 이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80kg에 19만2772원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0.4% 낮았다. 초과공급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가

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11월 산상까지 상승하다가 11월 중순 정부의 구곡 5만t 공매 이후 약보합세로 전환됐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신·구곡 교체시기에 예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산지유통업체의 보유 재고도 단경기까지 소진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재고 부담이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가 출하가 예상된다. 여기에 농가도 파종준비와 원료곡의 부패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4월까지 보유한 재고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가격 하락요인으로 꼽

힌다.

실제, 농경연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지난달 산상 표본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가격 인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하 논의가 있었던 업체의 31%가 저가 출하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올해 쌀도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효과를 고려한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73만 6000ha로, 지난해 12월 중순 조사한 73만 2000ha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곡 가격이 수확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논은 습답지역이라 물리적으로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이 참여 유인을 저하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시장격리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신곡 예상 공급량은 322만6000t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에 그치는 반면, 신곡 예상 수요량은 302만3000-307만3000t으로 15만-20만t의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가격이 하락된 채 시장에 풀리고 올해 쌀 역시 초과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농가들 역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올해 사전에 쌀 생산을 조정하지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에 어려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재배되는 쌀의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시장 하락 제한적...상승 동력 부족 셀트리온·삼성전자 등 공매도 상회 한·미 정상회담 기대 대북관련주 주목

미국 장·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경제심리가 확대되며 월요일부터 하락 출발한 국내증시는 모멘텀 부재속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증가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약세가 지속되던 국내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힌 므워신 미국 재무장관의 트위터가 전해지면서 상승합력수가 금요일에만 3.2% 상승하고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대북 관련주 및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며 마감했다.

하지만 주간기준으로 실적부진 우려로 전기전자, 정유화학, 회계이슈가 부각된 의약품(-5.68%)에 하락폭이 컸고 전기료인산 지연으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한국전력이 전주 -9.75%에 이어 -6.42%를 기록하며 3월에만 14.2%하락하며 지수하락을 확대시켰다.

최근 주시장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공매도라 할 수 있다. 공매도는 증권예약원 과 국민연금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에서 다시 매수하여 주식으로 갚아 수익을 얻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관 및 외국인만 가능한 상황이다.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표로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일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1월과 2월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5일 연속 20% 상승하였으며 28일에는 공매도가 당일 매도수량에 34%에 달했다. 셀트리온 역시 4일연속 20% 상승했고 LG화학도 5일 연속평균 15%를 넘었다. 지난주 공매도대금 기준 상위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순이었고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컴캐피칼,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펄어비스 이었다. 투자종목을 선정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좋은 투자습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는 연준의 금리동결과 긴축중단에 따른 시장영향이 완화되면서 연준과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표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승으로 이끌만한 재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은 국내증시의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삼성전자의 자율공시로 1분기 실적 발표시점이 시작되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악화는 예견된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전업종이 부진한 상황에서 실적부진기업이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화장품, 호텔레저, IT가전 등 실적개선기업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로 낙폭과대 대형주와 지속적인 조정으로 주가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대로 반등한 대북관련주는 이번 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므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협 전남본부, 한돈 알리기

나주서 '사랑의 나눔행사'

노인·소외계층 가정 초청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나주축협과 함께 지난 29일 나주시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노인·소외계층 가정을 초청해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돼지고기는 모두 다 한돈'을 주제로 구제역과 수급불안정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안전하고 맛있는 한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소비촉진과 나눔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단백질과 비타민A 등 영양소가 풍부해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돼지고기를 즐겨주고 앞으로 한돈을 더 사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류인플루엔자 5년만에 '0'

위기경보단계 평시 전환

겨울마다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는 2014년 이래 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수백건씩 발생해 가금류 농가와 방역 당국을 괴롭혀왔다. 2014~2015년 391건, 2016~2017년 421건, 2017~2018년 22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 겨울에는 야생조류에서 70건의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같은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I 방역과 관련,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하고 있지만, AI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상시 예방·점검으로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금 농가 CCTV 설치 의무화, AI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 등 방역 관련 규정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 '조합장 새출발 다짐대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29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관내 14개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조합장 새출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